

함평 복분자 재배농 “냉해 보상을”

함평지역 복분자(覆盆子) 재배농 가들이 봄철 이상저온과 일조량 부족 등 냉해피해로 복분자 수확량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해 율상을 짓고 있다.

24일 함평 복분자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봄철 이상으로 수확기가 늦어진 데다 수확량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격은 예년보다 5~10%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복분자 출하량이 줄어들에 따라 농가에서는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냉해피해 조사와 마쳤으나 특별한 보상대책이 없어 농가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는 일조량이 최근 40년 중 가

이상저온 등 영향 나무 죽고 열매 안 맺혀 수확량 지난해 절반 수준…인건비도 안돼

장 적고, 4월 중순에 눈이 내리고 기온마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정도의 이상저온으로 복분자 나무가 냉해를 입고 일부는 괴사해 농가들은 수확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가들은 “지난해 6월 수확 후 비가 예년보다 2배 가량 내렸고 겨울이 길고 추위 기운도 낮고 일조량이 부족해 생육이 좋지 않았다”며 “내다수 복분자 뿌리와 줄기가 습해로 부실해져 영양실조에 걸렸고 활력이 떨어져

괴사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함평 복분자 재배농 강재원(신광면) 회장은 “군에서 피해조사를 해놓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에서 소득작목 육성지원에서 틈새 농업으로 복분자를 재배하라 해놓고 이렇게 피해가 큰데도 너무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함평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39 농가가 49.5ha에서 복분자 24t을 수확해 1억 41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올해에는 248 농가·52.5ha로 농가와 면적이 늘었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최북단 초등생에 꿈과 희망 선물”

씨월드 고속훼리, 대성동초등생 초청 목포·제주도 투어

목포~제주간 해상운송 전문업체인 씨월드고속훼리(주)(대표이사 이혁영)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비무장지대(DMZ)내에 위치한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초등학교 전교생 30명을 초청, 목포와 제주도 투어를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KTX편으로 목포에 도착해 목포 3학대를 방문, 함정 등을 견학하고 목포 자연사박물관과 국

립 해양유물전시관 등 관광지를 둘러봤다.〈사진〉 22일에는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1만7000원 예약선을 타고 제주도 여행에 나섰다.

대성동초교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학교로 마을로부터 400m 북방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다.

이 대표는 매년 사비를 들여 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산골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목포시와 제주도 관광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혁영 대표이사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여행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서남해안 갯벌, 수산업 활용 10% 그쳐”

우리나라 갯벌어장의 회복방안과 활용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 수산과학원 한현섭 갯벌연구소장은 24일 전북 군산 리조프리자 호텔에서 열린 ‘서해안 갯벌양식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으로 갯벌면적이 감소하고, 해양선박 사고로 인한 유류 유출로 갯벌어장이 황폐해졌다”며 “사실상 수산업으로 활용되는 갯벌은 10%에 불과해 활성화 방안 마련

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오염물질의 정화기능이라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으로 인해 지난 1987년 320㎢에서 올해 2489.4㎢로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장은 “이로 인해 고생선과 갯벌어장이 축소되고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갯벌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

다”며 “2008년 갯벌 폐류생산량은

4만3593t으로 1990년 12만5334t에 비해 65.2%가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해안 갯벌은 수산업적 활용과 생태관광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극히 일부만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갯벌 양식면허를 받은 면적은 2만5792㏊(2551㏊)로 갯벌 전체면적의 10.2%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남지역 갯벌면적은 1036.9㎢으로 전국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전남의 경우 갯벌 어업권은 ▲새꼬막 810㏊(926㏊) ▲꼬

‘갯벌양식 현황·발전’ 세미나

새로운 유망 품종 개발 필요

막 214㏊(3126㏊) ▲바지락 152㏊(1453㏊) ▲백합 10㏊(164㏊) ▲가무락 6㏊(46㏊) 등 순이다.

한 소장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km당 평균 가치는 연간 39억원에 달한다”며 “갯벌생산 상황을 위한 갯벌생태계 복원과 함께 고부가치 품종의 갯벌 양식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지역 갯벌면적은 1036.9㎢으로 전국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 갯벌면적은 1036.9㎢